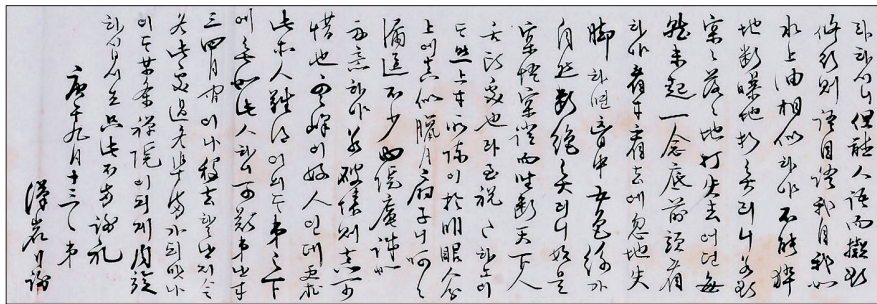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12)

‘悟後의 생애’ 한암만의 어구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6)

오랫동안 적조하던 차에 한 통의 서신을 받으니 병중(病中)의 회포에 위안이 되었습니...

오후(悟後)의 생애(生涯, 깨달음 후의 보임)에 대하여 옛 선승들께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

또 우리나라 보조국사(普照國師)는 《진심직설(真心直說)》 심종식망(十種息忘) 편에서 첫째는 알아차림(覺察, 自覺), 둘째는 마음을 쉼(休歇), 그리고 열 번째 계용에서 벗어남(透出體用)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 간절하지 않은 법어가 없습니...

또 옛 선승이 이르기를, “문으로 부터 들어온 것은 집 안의 보배가 아니다(從門入者, 不是家珍),”라고 하신 바와 같이, 그저 남의 말만 듣고 수행한다면 말은 말대로 나 는 나대도가 됩니다. 마치 물 위의 기름 같 아서 단박에 모든 망념을 끊어 버리는 경지 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난(灑落) 경지에 이르 고자 한다면, 항상 한 생각(망념)이 일어나기 전에 나아가 참구하고 또 참구하여 훌 륭히 화두를 타파(失脚)하면, 가슴속의 오 색심(胸中五色絲, 번뇌 망상)이 자연히 끊 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깨닫고 진실로 증득하면 그곳이 바로 천하 사람들 의 허(어)운(運)을 끊는 곳(坐斷天下人壽)

頭處입니다. 지극히 밋고 지극히 밋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말한 것들은 눈 밝은 사람에게선 선달 겨울의 부채(臘月扇子)에 불과합니다(참모없는 말이라는 뜻). 허허,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내원암(內院庵, 통도사 내원암)에 선방을 여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보내온 편지와 같이 계획을 과기하신다면 참으로 아깝습니다. 운봉(雲峰, 향곡스님의 은사)이 좋은 사람인데, 다시 이러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문하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 탄식할 뿐입니다. 나는 이동한다면 내년 3,4월 사이에 어디로 이동하고, 금년 동안에는 이곳에서 겨울을 지낼 준비가 다 되었습니...

경오(1930년) 9월 13일 한암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해설] 이 편지는 경봉스님이 깨달음 이후의 삶(悟後生涯)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답서(答書)이다. 오후생애(悟後生涯)는 오후수행(悟後修行, 깨달음 이후의 수행)과 같은 말로 보임을 뜻한다. 한암선사는 오후의 생애(깨달음 후의 보임)에 대하여 옛 선승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깨달음 후 보임하는 방법은 마치 ‘한 조각 바위처럼,’ ‘죽은 사람의 눈처럼’ 일체 사물과 대상에 대하여 의식을 끊으라는 것이다. 또 뱀, 지네, 두꺼비 등 독중(蠱毒)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와 같이 독물이 한 방울도 묻게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국사의 《진심직설》의 심종식망(十種息忘) 편을 참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후생애(悟後生涯)’ ‘홍중오색사(胸中五色絲, 俗塵, 번뇌 망상)’라는 말은 여타 선승들은 거의 쓰지 않는 한암선사 특유의 어구이다. 매우 문학적이 고 현장감 나는 용어이



윤창희(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 불자들에게 불교의 밝은 미래 달려 있다”

조은수 교수 (불교학연구회장)

대학 진학에 실패한 재수생 시절, 불교를 접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고민한 한 소녀가 있었다. 매일 아침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목탁소리를 들으며 꿈을 키운 그녀는 마침내 서울대에 진학했고, 재수시절 받은 감화로 이윽고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돼 불교학의 세계화로 그 꿈을 실현하고 있다.

힘든 재수생활, 조계사에서 불교 접해 조은수 교수가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인연이 작용했다. 사실 조은수 교수는 학부시절 약대를 나왔다. 전공분야가 전혀 다른 불교를 뒤늦게 공부해 세계적인 석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구나 놀라움 따름이었다.

조 교수가 ‘약사의 길’ 대신 ‘불교 철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조계사 부처님의 가피였다. 40여 년 전, 조은수 교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서울 종로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했다. 당시 종로학원의 위치가 바로 조계사 대웅전 앞이었다. 조은수 교수는 힘든 재수 생활 중 가슴이 답답할 때면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절도하고 앉아서 쉬며 마음을 놓았다.

조 교수는 “민감한 청소년이었던 그 시절, 대웅전에 앉 아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었 어요. 치성찬 마음이 솟으면서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 게 됐지요”라고 말했다.

불교와 인연을 쌓은 조 교수는 마침내 1977년 서울대 에 입학한다. 여기서도 조 교수의 심심은 높아져 갔다. 조 교수는 서울대 총불교학생회에서 가입해 수업 시간에도 불 래말래 철학과 수업을 들은 듯 했다. 대학에 진학해 접한 인 도철학자 라지니쉬의 저서는 조 교수에게 큰 영감을 주 었다. 라지니쉬는 당시 서구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은 철 학자 중 한명이었다.

“제 대학생활은 불교학회 선배들과 함께 토론하 고, 여름이면 사찰수련회를 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컸어요. 철학서를 보고 불교학회에서 동기, 선배들과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해인 사에서는 성철 스님께 가서 배우고, 또 혼자기도 했죠. 그 때 불교학회는 그 속에 진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꿈 꿀 수 있는 삶의 하나였어요.”

불교에 심취한 조 교수는 약대를 졸업 한 후 부모님 몰 래 서울대 철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철학을 하는 여성이 많지 않던 시절,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굳은 결심 하에 미국 유학, 교수의 길 걸어 서울대 철학 대학원은 동양철학뿐만 아니라 서양철학 등 여러 학문을 두루 배우는 기회가 됐다. 석사를 마친 조 교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도전하는 것을 선택한다. 바로 미국 유학이다.

“그때는 대학원에 불교 쪽 교수님은 심재룡 교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해 아이도 6살이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죠. 그런데 미국의 좋은 점은 대학원에 입학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그 것을 보장해준다는 거였죠. 과감히 미국행을 결심했어요.”

7년 만에 버클리대에서 ‘아비달마’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조교수를 지내게 된다. 이후 7년을 합해 총 15년 동안 미국에서 있었 던 그녀는 2004년 8월 교수로 모교인 서울대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서울대학 차원에서 동양철학,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입니다. 한국사회가 크게 변화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예전과 달리 여성이기에 받는 차별이 줄어든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불교를 공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불교

재수생 시절 조계사에서 불교와 인연

서울대 불교학회에서 불심 다져

철학 대학원 진학 후 본격적으로 공부

미버클리대서 박사 후 미시간대서 교수

2004년 한국 돌아와 후학 양성 매진

GEIP 프로그램 등 글로벌 역량 강화 나서

한국불교학계, 세계불교학계와 소통에 앞장

“교육이 처음이자 끝” 인재 양성 강조

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건 모두 부처님의 가피 덕분입니다.”

세계불교학회와 소통하는데 앞장

조은수 교수는 현재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젊은 학자들이 세계불교학계와 소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규장각에서도 연구 활동을 하며, 서울시 마포 대안학교 이사장 등 다양한 일을 맡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맡아 불교학계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그 안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불교철학을 연구하고자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있다.

“오는 8월이면 제가 귀국한지 10년이 됩니다. 첫째는 귀국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작고하신 은사 심재룡 교수님의 발자취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되요. 둘째는 제가 한국사회, 학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

해 돌아보게 됩니다.”

조 교수는 故심재룡 교수에 대해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토론하길 즐겨했다고 회고했다. 조 교수는 “교수님은 한국 선불교 전통의 정체성을 학문의 장 속에서 이론적으로 확립하신 분”이라며 “고려 보조사님에 의해 정립된 선의 이론과 수행법이 조선 불교수행 규범으로 계승된 점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돈오 점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후에 성철 스님에 의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학문적 논변의 계기가 됐고, 그런 논변 하에 한국불교의 학문은 더욱 풍성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불교학계에 10여종의 학술지가 있고, 많은 논문이 양산되고 있지만 일방적인 배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조 교수는 한국불교학계가 세계불교학계와 소통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한국 불교학자들의 수준은 매우 높아요. 다만 그 수준이 이론을 세우거나 학문적 논변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는 “불교학계에 10여종의 학술지가 있고, 많은 논문이 양산되고 있지만 일방적인 배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조 교수는 한국불교학계가 세계불교학계와 소통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에서의 한국학자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입니다. 일본학계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일본불교가 세계학계에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지속적인 소통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조 교수는 한국학계가 적극적으로 세계대회 등에 참여해 논문 등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해외 학자들이 많습니...

조 교수는 2011년 태국 IABS대회에 박경준 교수, 서재영 박사, 이도홍 교수 등과 한국불교의 환경보호 운동에 대해 발표를 하기도 했다.

“불교학계에 소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불교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학자들과 교류하며, 해외 발표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해요.”

이러한 조 교수의 영향으로 올해 8월 비엔나에서 열리는 IABS에는 서울대 석·박사 10명이 발표를 한다.

불교 여성역시 신장·교육 발전에 기여 할 것

조은수 교수는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사가타다 세계불교여성연합 부회장 등을 맡아 불교여성 인권 신장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불교 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불교 명맥을 이어간 것은 재가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치를 단순히 기복불교라고 해서 폄하 받는 것이 현재 불교계의 시선입니다. 사찰에서 여성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의식화하고 교육시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큰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큰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요니 공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 인 모 집

◆ 열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중보유자 동현스님!
◆ 사모곡, 회심곡, 백발가, 참회곡, 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대상: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초 급 반: **교육과정** -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서, 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사마지불공, 관음시식
초급(일반) 수업: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 수업: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10개월 / 초급속성: 5개월

◆ 중 급 반: **교육과정** - 시련, 대령관육, 시왕불공, 시시편, 봉송편, 상가염불, 불상정안, 전전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 수업: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 수업: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중급일반: 15개월 중급속성: 10개월

◆ **작법 (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회의제바라. (오공양작법)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